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지음
송태효 옮김

나는 어린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따라 떠나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실린 그림은 생텍쥐페리 자신이 그린 그림이다.

새로운사람들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의 「사람들의 땅」 후편이다.

어린 왕자

초판1쇄 인쇄 2014년 4월 18일

초판1쇄 발행 2014년 4월 22일

지은이 앙투안 마리 로제 드 생텍쥐페리

옮긴이 송태호

펴낸이 이재욱

펴낸곳 (주)새로운사람들

디자인 이즈플러스

마케팅·관리 김종림

© 어린 왕자 인문학당, 2014

등록일 1994년 10월 27일

등록번호 제2-1825호

주소 서울 도봉구 덕릉로 54가길25

전화 02)2237-3301, 팩스 02)2237-3389

이메일 ssbooks@chol.com

홈페이지 <http://www.ssbooks.biz>

ISBN 978-89-8120-493-8 (04810)

ISBN 978-89-8120-492-1 (세트)

* 책값은 뒤표지에 씌어 있습니다.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아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내게는 그럴만 한 각별한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이야말로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심지어 아동 도서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정은 이렇다. 이 어른이 지금 프랑스에서 굶주린 채 추위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어른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의 그에게 이 책을 바치겠노라. 어른들도 한때는 모두 어린아이였으니까. (하기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거의 없지만 말이야.) 그래서 헌사를 이렇게 수정하노라.

어린아이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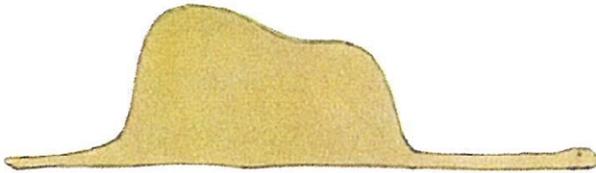
I



여섯 살 시절 나는 『모험기』라는 제목의 원시림 이야기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삼키는 보아 뱀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걸 옮겨 그려 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는 꼼짝달싹 못 한 채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여섯 달 동안 잠만 잔다.”

그래서 정글 속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혼자서 색연필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려 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내 그림 1호는 이러했다.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 주고 그림이 무섭지 않은지 물었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하는 보아 뱀 그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뱀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이 필요한 법이다. 나의 그림 2호는 이러했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보아 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이런 연유로 그만 나는 나이 여섯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 버렸다. 내 그림 1호와 그림 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꺾인 탓이다. 어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설명을 해 주어야 하니 어린 아이들로서는 피곤한 일이다.

그렇게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해야 했기에 비행기 모는 법을 배웠다. 거의 안 가 본 데 없이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는 진정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야간 비행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지리는 정말 쓸모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어른들 세계에서 많이 살았다는 얘기다. 나는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견해가 그다지 나아진 것도 아니다.

어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로 시험해 보았다. 그가 정말 헤

안을 지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온 답은 ‘어, 모자잖아’였다. 그러면 나는 보아 뺨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 수준에 맞게 말을 꺼냈다. 트럼프, 골프, 정치, 벡타이 이야기 말이다. 그러면 어른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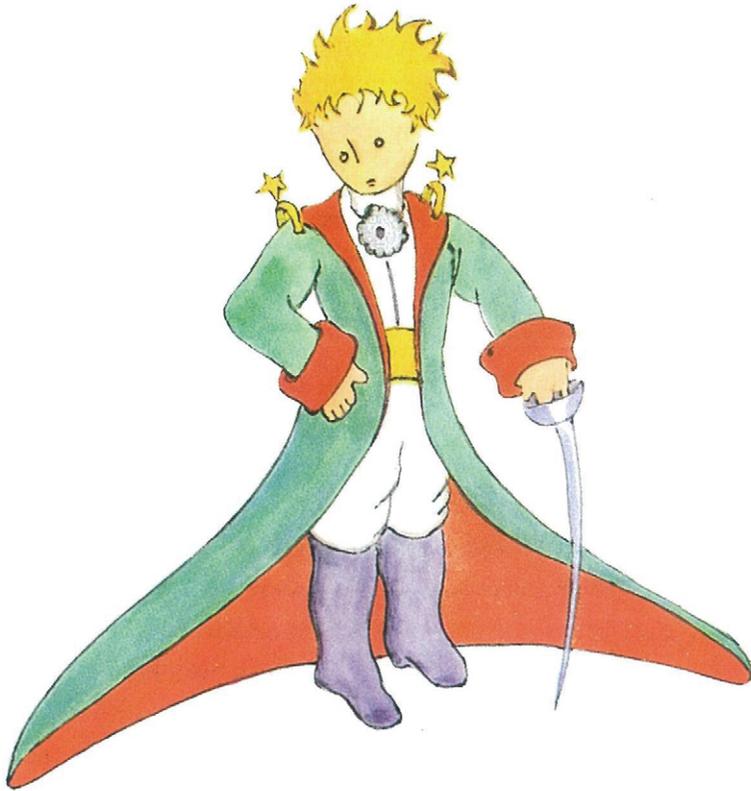
II

나는 이렇게 진심어린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고독하게 살았다. 육 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도. 엔진 내부 어딘가가 파손되어 기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서 어려운 수리에 나선 참이었다. 나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물도 겨우 일주일 치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첫날밤은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수면을 취했다. 대양 한가운데 난파당해 표류하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훨씬 더 외로웠다. 그러니 동틀 무렵 이상 야릇한 꼬마목소리에 깨어난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양 한 마리만 그려 줘!”

“뭐라고?”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려낸 그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잘된 초상화이다.

“양 한 마리 그려 달라니까...”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나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열심히 눈을 비비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범상치 않은 모습의 어떤 어린 녀석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려낸 그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잘된 초상화다. 그러나 당연히 내 그림은 모델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여섯 살 때 어른들 때문에 기가 꺾여 화가로서의 내 직업에서 멀어져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 뱀 말고는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부릅뜨고 유령처럼 출현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라. 그런데 녀석은 길을 잃었다거나, 피곤함에 시달리거나,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시달린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으니까. 마침내 겨우 입을 열어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여기서 뭐 하니?”

그러자 그는 매우 진지한 이야기라도 하듯이 아주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저씨...양 한 마리만 그려 줘...”

신비로움이 너무 강렬하면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과 대면한 처지치고는 영 터무니없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곤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기분이 언짢아져)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녀석에게 털어냈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한 번도 양을 그려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두 그림 가운데 하나를 다시 그려 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뱀 그림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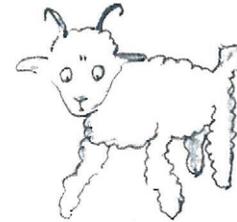
그러자 녀석은, “아니, 아니, 보아 뱀 속 코끼리는 싫어. 보아 뱀은 무지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 사는 곳은 아주 좁아. 난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 줘!” 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렸다.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이진 벌써 병이 심한데. 다시 하나 그려 줘.”

나는 또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봐... 이진 양이 아니라 숫양인 걸. 뿔이 달렸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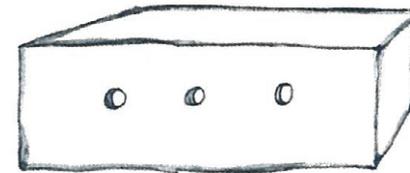
그래서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의 그림들처럼 퇴짜를 놓는 것이 아닌가.

“이진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나는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 했기에 그만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대충 끼적거리 주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진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상자 안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걸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챙겨

줘야 하나?”

“왜?”

“우리 집은 아주 작거든...”

“틀림없이 충분할 거다. 네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그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걸... 어라! 잠들었네...”

이렇게 어린왕자를 알게 되었다.



III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내 질문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우연히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 덕분에 점차 모든 것이 밝혀졌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으로 본 그는(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으려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도 복잡한 그림이니까) 내게 이렇게 물어 왔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거든. 비행기지. 내 비행기란다.”

그리고 내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자 우쭐해졌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뭘,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지?”

“그럼.” 하고 나는 겸손하게 답했다.

“아! 거참 재미있네…”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매우 멋지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내 기분은 몹시 언짢았다. 다른 사람들이 내 불행을 심각하게 받아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어느 별인데?”

나는 곧바로 수수께끼 같은 그 존재 속에 한 줄기 서광처럼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아 불쑥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왔다 이거지?”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만 바라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야 이길로는 그렇게 멀리서 올 수도 없었겠네…”

그러고는 한참 동안 깊이 몽상에 잠겼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 준 양을 꺼내서는 그 보물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른 별들’에 관한 알 듯 말 듯 한 이야기에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했을지 상상해 보라. 그래서 애써 좀 더 알아보고자 했다.

“꼬마야, 넌 어디서 왔니? ‘네 집’이라니 그게 어딘데? 내 양은 어디로 데려간단 말이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내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 잘 됐지 뭐야.”

“그렇고말고, 그리고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 양을 묶어 놓게 줄을 주마. 그리고 말뚝도.”

그 제안에 어린 왕자는 황당해했다.

“양을 묶어 놔? 참 희한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 놓지 않으면 아무 데로나 가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자 내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빛으로 말했다.
“상관없어. 우리 집은 아주 작으니까!”
그러고는 약간은 우수를 머금은 채 말을 이었다.
“곧장 가 봐야 그렇게 멀리 가지도 못해…”



소행성 B612호에 선 어린 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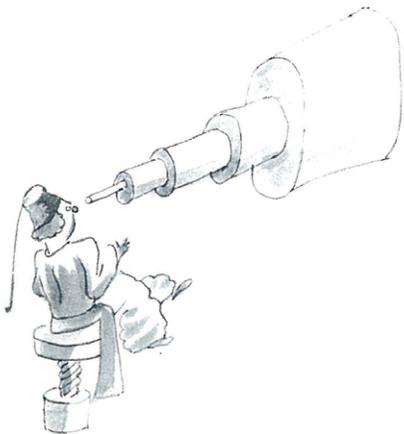


IV

이렇게 나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떠난 별이 겨우 집 한 채 만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이름이 붙은 커다란 행성들 외에도 수백 개의 다른 행성들이 있는데 어떤 행성들은 너무도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식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작은 행성을 하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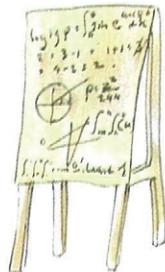
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호'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떠난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믿는 데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이 소행성을 1909년 딱 한 번 터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국제 천문학 대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성대히 증명해 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어른은 언제나 그렇다.

다행히도 소행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 터키의 독재자는 백성에게 서구 의상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세련된 의상을 차려입고 다시 증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주고 그 번호까지 늘어놓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하면 어른들은 절대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친구 목소리는 어때? 무슨 놀이를 좋아한대? 나비 채집도 한다든?” 어른들은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니? 체중은? 아버지 수입은 얼마래?” 하고 묻는다. 그래야 비로소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 화분에 제라늄을 키우고 지붕에 비둘기가 있는 분홍 벽돌집을 봤는데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십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참 좋은 집이군!” 하고 외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매혹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지. 누군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거든” 하

고 말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호입니다.”라고 말하면 확실히 믿고 더는 물음을 던지며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 모양이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늘 어른들에게 매우 너그러워야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동화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옛날에 저보다 좀 클까 말까 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지요…”라고.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에겐 그게 훨씬 더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내 책이 읽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담을 꺼내노라니 깊은 슬픔이 느껴진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육 년이 흘렀다. 내가 지금 그를 그리려 애쓰는 것도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도 숫자에만 관심을 보이게 된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그림물감 한 상자와 연필 몇 자루를 산 것이다. 여섯 살 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 뱀 외에는 그려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물론 가능한 한 가장 실물을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 한다. 그렇다고 성공을 완전히 확신할 수도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닮은 구석이 없다. 키도 약간 어긋나 있다. 여기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기 어린 왕자는 또 너무 작다. 옷 색깔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근근이 이래저래 더듬더듬 그려 본다. 더 중요한 세부 사항 몇몇은 틀리게 그려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점은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설명이라곤 해 준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내가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너머로 양을 볼 줄 모른다. 아마 나도 조금은 어른들을 닮아버린 것 같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V

하루하루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 대해, 그와의 이별에 대해, 그간의 여행에 대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에 잠기다 매우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바오밥나무의 비극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듯 어린 왕자가 불쑥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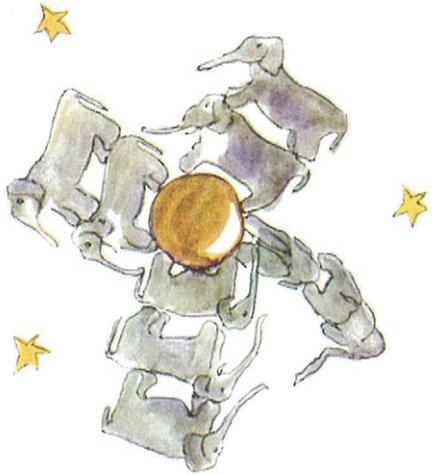
“정말, 그렇지, 양이 키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는 게?”

“그럼, 정말이지.”

“아! 마침 잘됐네!”

양이 키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바오밥나무도 먹는다는 거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나무는 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 거대한 나무이고, 코끼리를 떼로 몰고 가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당해 내기는 힘들 거라고 알려 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가 웃었다.

“코끼리들을 포개 놔야겠군...”

그런데 그가 충기 있게 말했다.

“바오밥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였겠지?”

“그럼! 그런데 왜 네 양이 어린 바오밥나무를 먹었으면 하지?”

어린 왕자는 무척 당연하다는 듯 “참! 나 이런!” 하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한 참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사실 다른 모든 행성에서처럼 어린 왕자가 사는 행성에도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살았다. 따라서 좋은 풀을 낳는 좋은 씨앗들과 나쁜 풀을 낳는 나쁜 씨앗들이 있었다. 하지만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고 싶을 때까지 땅 속 깊이 숨어 잠을 잔다. 그러다 씨앗 하나가 기지개를 켜고는, 태양을 향해 처음에는 수줍은 듯 어여쁘고 순진한 어린싹을 내민다. 그것이 무나장미의 싹이면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알아보자마자 즉시 뽑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었다...바오밥나무 씨앗들이었다. 그 행성의 토양은 바오밥나무 씨앗 투성이였다. 그런데 바오밥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영영 제거 불능 상태가 된다. 행성 전체가 엉망이 된다. 그 뿌리들이 별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그래서 행성은 너무 작는데 바오밥나무가 너무 많으면 급기야 행성이 터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구울의 문제라고나 할까.”

훗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 세수를 마치면 정성껏 별을 돌봐야 해.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곧 그 바오밥나무를 반드시 쏘아 내야 하거든. 아주 어린 바오밥나무는 정말 장미를 닮았어. 아주 성가신 일이지만 아주 쉬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지구에 사는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쏙 들어갈 만한 예쁜 그림 하나를 그려 보라고 충고하는 것
 이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한다면 그 그림이 도움될 거
 야. 때로는 할 일을 뒤로 미뤄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하
 지만 바오밥나무는 그랬다가는 언제나 엄청난 재난이지. 게
 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알고 있었어. 그는 키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그만...”

그래서 어린 왕자가 하라는 대로 그 행성을 그려 보았다.
 나는 도덕군자의 말투를 싫어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오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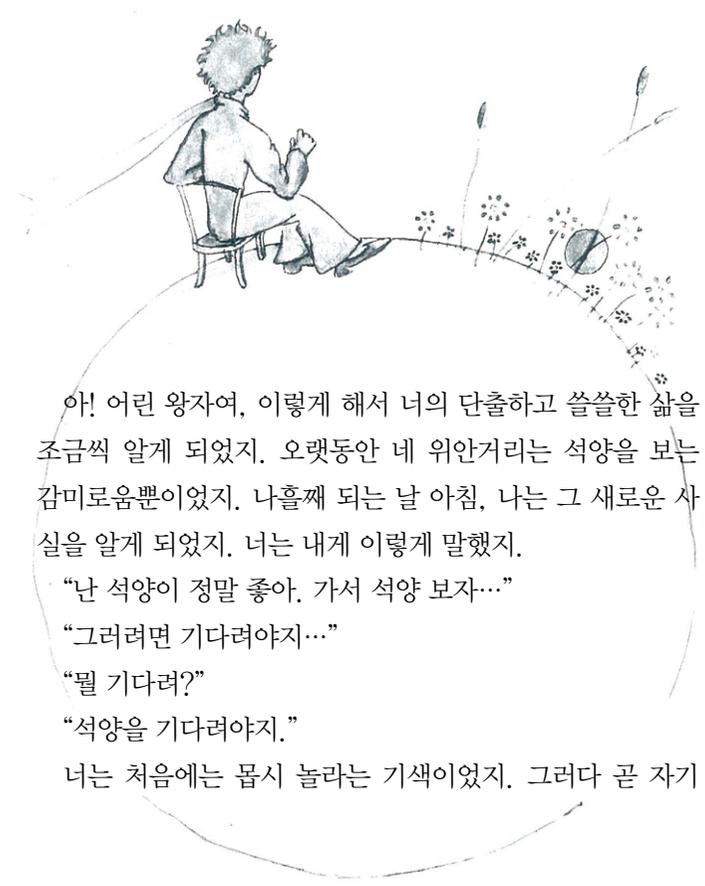
바오밥나무

나무의 위험을 너무 모르고 있어, 소행성에서 길을 잃고 헤맬 사람이 겪을 위험이 너무 크기에 처음으로 나의 금기를 깨고 “어린이들이여! 바오밥나무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그토록 정성을 들여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고자 함이다. 나처럼 어린이들도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내가 전하는 교훈은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어쩌면 당신은 “왜 이 책에는 바오밥나무 그림만큼 장엄한 다른 그림들은 없는 걸까?” 하며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리려 애써 보았지만 실패했다. 바오밥나무를 그릴 당시에는 절박감에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VI



아! 어린 왕자여, 이렇게 해서 너의 단출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지. 오랫동안 네 위안거리는 석양을 보는 감미로움뿐이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석양이 정말 좋아. 가서 석양 보자...”

“그러려면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석양을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몹시 놀라는 기색이었지. 그러다 곧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게 말했다.

“아직도 내 별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

실제로 그래.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이 한낮일 때 프랑스는 해가 지지. 일본 내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석양을 볼 수 있으면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어. 그러나 너의 작은 행성에서야 의자를 몇 걸음 당기면 되었지. 그래서 언제고 네가 원하면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느 날 나는 해가 지는 걸 마흔네 번이나 봤어!”

그러고는 잠시 후 다시 말했다.

“아저씨도 알지...몹시 슬퍼지면 석양이 좋아져...”

“마흔네 번 본 석양을 본 날은 그만큼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지.



VII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불쑥 내게 물었다, 오랫동안 곰곰이 골몰해 오던 어떤 문제의 결실인 듯 말이다.

“양이 키 작은 나무를 먹으면 꽃도 먹겠네?”

“양은 닥치는 대로 먹어 버리지.”

“가시 달린 꽃도?”

“그럼, 가시 달린 꽃도.”

“그럼 가시는 왜 달려 있는데?”

나는 몰랐다. 그때 나는 내 엔진에 너무 꼭 죄어 있는 나사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걱정이 태산 같았다. 비행기 고장이 매우 심각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실 물도 동이나 최악의 상태가 우려되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가시는 왜 달려 있는 거냐고?”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사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 아무렇게나 대답해 버렸다.

“가시는 괜히 있는 거야. 꽃이 괜히 심통 부리는 거지.”

“아!”

그러나 잠시 잠자코 있던 어린 왕자가 나에게 양갓음하듯 쏘아붙였다.

“아저씨 말을 믿으라고? 꽃은 약해. 순진하기도 하고, 나를 자신을 지켜 내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지, 가시가 있으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볼트가 끝내 빠지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부숴야지.”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는 그렇게 믿는 거야. 꽃들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되는 대로 대답한 거야. 심각한 일로 바쁘거든!”

깜짝 놀란 그가 나를 쏘아보았다.

“심각한 일이라고?”

시커먼 기름투성이 손가락으로 망치를 손에 든 채, 매우 지저분하게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

“꼭 어른처럼 말하네!”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도 그는 매정했다.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그는 정말 뿔이 잔뜩 나 있었다. 진한 금발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내가 아는 어느 별에 시벨건 신사가 하나 살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말아 본 적이 없어. 별 하나 바라본 적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지. 계산 말고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거든. 그래서 온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심각한 사람이야! 심각한 사람이라고!’ 되뇌지. 그래서 오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의 얼굴은 너무 심한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양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그 꽃을 먹어 왔고. 그런데도 꽃들이 아무 쓸모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 왜 그 고생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양과 꽃들의 전쟁이 별 거 아니라고? 얼굴이 별 건 똥똥한 아저씨가 하는 덧셈이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데도 없고 오직 내 행성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새끼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단숨에 그걸 먹어 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얼굴이 별정계 달아오른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 수백만 개나 되는 별들 속에 그런 종류로는 단 한송이뿐인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는 홀로 말하겠지.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다고...’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 버린다?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꺼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야?”

그는 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별안간 흐느끼기 시작했다. 주위에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나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개의치 않았다. 어떤 별, 어떤 행성, 내 행성인 지구에 달래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품에 안아 주었다. 그를 조용히 흔들며 달래 주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을 거야...양의 입에 부리망을 하나 그려 줄게...꽃을 위해서는 갑옷도 그려 주고...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 자신이 무척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에게 다다를지, 어디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을지...나는 알 수 없었다...그토록 신비로운 것이다, 눈물의 나라!



VIII

나는 곧 그 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예전부터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아주 단순한 꽃들이 있었다. 흙꽃잎을 두른 이 꽃들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자취를 감추곤 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 온 씨앗에서 어느 날 바로 그 꽃이 싹을 틔웠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을 닦지 않은 그 싹을 매우 가까이서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나무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 키 작은 나무는 이내 성장을 멈추고 꽃 피울 준비를 했다. 어린 왕자는 커다랗게 뻗어 가는 꽃망울을 지켜보다 거기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리라 직감하였다. 그러나 꽃은 초록 봉오리 안에 숨어 미모를 다듬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색깔을

끌랐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처럼 온통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렇다. 정말로 교태를 부리는 꽃이었다! 그 신비로운 화장을 그래서 며칠이나 지속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바로 해돋이 시각에 드디어 그 꽃이 자태를 드러냈다.

그런데 것처럼 정성스레 화장했던 그 꽃이 하품을 해대며 이렇게 말을 걸어 왔다.

“아! 이제 겨우 일어났네요. ...미안해요...여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어서요...”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감탄을 억누를 수 없었다.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난 해와 함께 태어난 거죠...”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이 꽃이 너무 겸손하지 않음을 간파했다. 그래도 이 꽃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으니!

곧이어 꽃이 말을 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네요. 제 생각 좀 해주실 수 있을



는지요...”

그래서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와 꽃에 물을 주었다.

그렇게 꽃은 얼마 되지도 않아 약간은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몸에 난 네 개의 가시 이야기를 들먹거리며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호랑이가 발톱으로 덤벼들어봐도 괜찮아요!”

어린 왕자는 반박했다.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풀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저는 풀이 아니거든요.”

“미안하네요...”

“호랑이 따윈 전혀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딱 질색이에요. 바람막이 있어요?”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바람은 질색이라...식물로 서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걸.”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 덮개를 씌워 주세요. 당신 사는 곳은 매우 춥군요. 잘못 내려앉았나 봐요. 내가 떠나온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잊지 못했다. 꽃은 씨앗의 형태로 왔었으니까. 다른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다 들킨 게 부끄러운지 꽃은 자신의 잘못을 어린 왕자 탓으로 돌리려 두세 번 콜록거렸다.

“바람막이는요? ...”

“딱 찾으려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그 꽃은 그래도 어린 왕자가 가책을 느끼도록 더 심하게 콜록거렸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자신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호의에도 그만 그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참으로 불행을 산 것이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털어놓았다.

“꽃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닌데 꽃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 바라보고 향내를 맡아야지.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했지. 그런데도 그 기쁨을 누릴 줄 몰랐다니. 나를 짜증나게 한 그 발톱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야 했는데...”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꽃을 판단했어야 해.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하고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었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가련한 속임수 뒤에 가려진 다정함을 알아챘어야 했어. 꽃이란 정말 모순덩어리야! 하지만 꽃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렸나 봐.”





IX

내 생각에 어린 왕자는 철새들의 이동을 따라 떠난 것 같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자기 행성을 깨끗이 정돈했다. 활동 중인 화산 분화구도 정성껏 청소했다. 행성에는 두 개의 화산이 활동하고 있었다. 아침밥을 데우는 데는 제격이었다. 꺼진 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했듯이 “누가 알아!” 그래서 그는 꺼진 화산도 청소했다. 화산들은 청소를 잘 해 놓으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하게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불길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는 화산을 청소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존재다. 그러니 화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또 약간은 우울한 기분으로 새로 올라온 바오밥나무의 싹들을 뽑아 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따라 그 친숙한 작업 모두가 유난히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 주려는 순간 그만 울고 싶어졌다.

그는 꽃에게 말했다.

“잘 있어.”

하지만 꽃은 대답이 없었다.

그가 되풀이했다.

“잘 있으라고.”

꽃은 콜록거렸다. 하지만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윽고 꽃이 말했다.

“내가 바보였나 봐. 용서해 줘. 부디 행복해야 해.”

꾸짖는 기색이 없어 어린 왕자는 놀랐다. 그는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침착한 다정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널 사랑해. 그것도 몰라주고, 내 탓이지. 상관 없어. 하지만 너도 나만큼 바보였었지. 부디 행복해야 해… 유리덮개는 내버려 둬. 이젠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바람이 불면…”

“심한 감기는 아냐… 신선한 밤 공기는 몸에 좋을 거야. 나는 한 송이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오면…”

“나비를 만나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은 견뎌 내야지. 나비

는 참으로 아름다운가 봐. 나비 말고 누가 나를 찾아 주겠어? 너는 멀리 가 있겠지. 덩치 큰 놈들은 두렵지 않아.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가시 네 개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렇게 우물거리지 마. 짜증 나. 떠나기로 했잖아. 어서 가 봐.”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었다. 그토록 잘난 꽃이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활동 중인 화산 분화구를 정성껏 청소했다.

X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찾고 가르침도 구할 겸 해서 그 별들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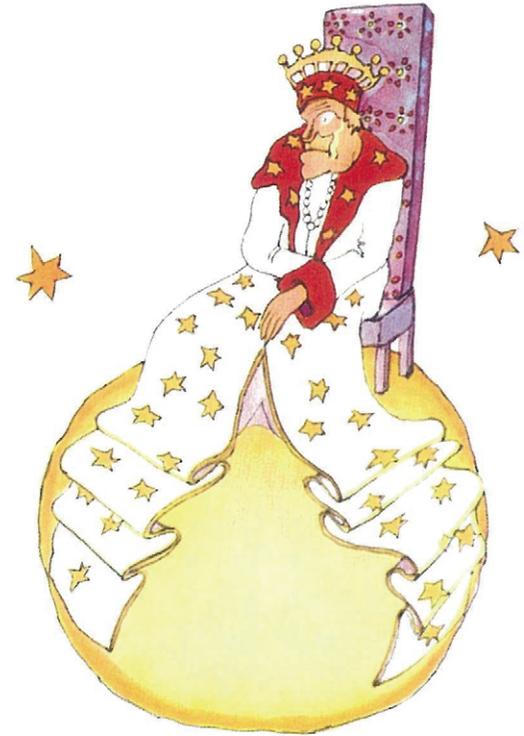
첫 번째 별에는 어느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주홍빛 천과 별점 무늬가 있는 흰 담비 모피 망토를 걸치고 매우 소박하면서도 위엄이 풍기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하나 오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이 큰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의아스러웠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왕들에게는 세상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왕에겐 만인이 신하인 것이다.



“짐이 그대를 좀 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오너라.”

누군가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지니게 된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그 별은 온통 화려한 흰 담비 모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곤해져 하품을 해댔다.



왕이 말했다.

“어전에서 하품하는 것은 결례이니라. 하품을 금하노라.”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으로 잠을 못 잤거든요…”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명하노라. 하품하는 사람을 본 지도 여러 해 되었구나. 하품도 짐에게는 신기하도다. 자! 또 하품을 하라. 어명이니라.”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니…하품이 안 나오네요…”

왕이 대답했다.

“흠! 흠! 그렇다면 짐이…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왕은 화난 기색이었다.

왕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반항은 용납될 수 없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하지만 매우 선해서 지당한 명령을 내렸다.

왕은 거침없이 말했다.

“만약에 짐이 어느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겠지. 그건 짐의 잘못이리라.”

“앉아도 돼요?”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짐은 네가 앉기를 명하노라.”

흰 담비 모피 망토 자락을 위엄 있게 걷어 올리며 왕이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해하고 있었다. 별은 아주 조그맣았다. 도대체 왕이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폐하, 한 가지 여쭙어도 좋을까요? …”

“짐은 네게 명하노니. 질문하라.”

왕이 서둘러 말했다.

“폐하…폐하는 무엇을 다스리나요?”

왕이 매우 간단히 대답했다.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모든 것어요?”

왕은 위엄 있게 자신의 별과 다른 모든 별과 행성을 가리켰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 모든 별어요?”

왕이 대답했다.

“저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 아니라 우주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께 복종하나요?”

왕이 말했다.

“당연하지. 즉각 복종하노라. 불복종은 용서치 않노라.”

어린 왕자는 그러한 대단한 권력에 경탄했다.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서도 하루에 마흔네 번이 아니라, 일흔두 번이라도, 아니 백 번이라도, 이 백 번이라도 석양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버리고 온 자신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으로 어린 왕자는 약간 슬퍼지기도 하여 감히 용기를 내어 왕의 은총을 빌었다.

“석양을 보고 싶어요. …제게 기쁨을 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보세요…”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든지, 비극을 한 편 쓰라든지,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잘못일까, 짐의 잘못일까?”

“폐하의 잘못이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옳으니라.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니라.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에 근거해야 하느니라. 만일 네가 너의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은 짐의 명령이 지당하기 때문이니라.”

“그럼 제가 부탁한 석양은요?” 하고 일단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그걸 다시 상기시켰다.

“석양을 보게 해 주겠노라. 짐이 명령하겠노라. 허나 짐의 통치 원칙에 따라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게 언젠데요?”

왕이 대답했다.

“흠, 흠! 오늘 저녁…오늘 저녁…일곱 시 사십 분경이 될 것이다!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석양을 못 보게 된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벌써 약간은 지루해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여기서 제가 할 일은 없군요. 다시 떠나겠어요!”

신하가 한 사람 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왕이 답했다.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짐은 너를 장관에 임명하겠노라!”

“무슨 장관요?”

“음…법무부 장관!”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없잖아요!”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건 모를 일이다.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돌아보지 않았노라. 짐은 매우 늙었고, 사륜마차를 둘 장소도 없고, 견자니 피곤해서.”

“아! 제가 벌써 다 보았어요.”

허리를 굽혀 그 행성 저 편을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왕이 대답했다.

“그럼 너 자신을 재판하라. 그건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로다. 네가 너 자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네가 진정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는 어디서든 저를 재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왕이 대답했다.

“흠! 흠!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걸로 사료된다. 밤이면 소리가 들리노라. 그 늙은 쥐를 재판하도록 하라. 때때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그러면 그의 목숨은 너의 재판에 좌우될 것이로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 그를 아끼도록 하라. 단 한 마리밖에 없으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저는 사형선고를 내리기 싫어요. 아무래도 떠나야겠네요.”

“그건 안 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쳤으나 늙은 왕을 괴롭히고 싶

지는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준수되길 원하신다면 제게 지당한 명령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일 분 내로 떠나라고 제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조건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그때 왕이 “짐은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하고 왕이 급히 소리질렀다.

그는 매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XI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았다.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쟁이는 멀리서부터 외쳤다.

“아! 아! 숭배자가 남시는군!”

허영쟁이에게 다른 모든 사람은 숭배자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희한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답례용이지. 사람들이 내게 환호를 보낼 때 답례하려고 쓰고 있지. 그런데 불행히도 이리로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허영쟁이가 답했다.

“아, 그래요?”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양손을 서로 마주 쳐봐.”

허영쟁이가 가르쳐 주었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쟁이가 모자를 들어 올리며 공손히 답례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재미있는데.”

그래서 그는 다시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다시 답례했다.



한 오 분쯤 연습하다 보니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흥미를 잃고 말았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떻게 해야 모자가 떨어지나요?”

그러나 허영쟁이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뽕쟁이 아저씨에게는 오로지 칭찬만 들리는 법이다.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정말로 나를 숭배하니?”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숭배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 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엔 아저씨 혼자잖아!”

“나를 즐겁게 해다오. 그래도 나를 숭배해다오.”

“아저씨를 숭배해. 그런데 그게 아저씨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깨를 조금 들썩하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참 이상해.’

여행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이렇게만 생각했다.



XII

다음 별에는 술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우울함은 엄청났다.

“거기서 뭐 해?”

빈 병 한 무더기와 가득한 병 무더기 앞에 말없이 앉아 있는 술 아저씨에게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 아저씨가 대꾸했다.

“왜 마시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어버리려고.”

술 아저씨가 답했다.

“뭘 잊어?”



측은지심에서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으려고.”
 고개를 숙이며 술 아저씨가 답했다.
 “뭐가 부끄러운데?”
 술에서 그를 꺼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 아저씨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당황한 어린 왕자는 곧바로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아주, 아주 이상해.’
 여행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이렇게만 생각했다.



XIII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하도 바빠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 더하기 셋은 열다섯. 안녕. 열다섯 하고 일곱은 스물둘. 스물둘 하고 여섯은 스물여덟. 담뱃불 다시 붙일 시간도 없네. 스물 여섯에 다섯은 서른하나! 휴우! 그러니까 오억 일백육십이만 이천칠백삼십 일이네.”

“뭐가 오억이야?”

“어라? 너 여태 거기 있어? 오억 일백만... 뭐더라 하도 바빠서 말이지.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쓰잘 데 없는 소리 할



시간이 없어! 둘 더하기 다섯은 일곱…”

“뭐가 오역인데?”

일단 던진 질문은 결코 포기한 적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이 별에서 오십사 년 동안 살았는데, 방해를 받은 건 딱 세 번뿐이야. 첫 번째는 이십이 년 전 일인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웬 풍뎡이 녀석이 한 마리 떨어졌었지. 하도 웅웅거리는 통에 덧셈을 네 군데나 틀렸지. 두 번째는 십일 년 전인데

신경통 발작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거든. 산책할 시간도 없어. 착실한 사람이라 그렇단다. 세 번째가…바로 지금이야! 가만있자. 오역 일백만이던가…?”

“뭐가 일백만이라는 거야?”

사업가는 조용히 계산하기는 글렀다는 걸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 말이다.”

“파리요?”

“천만에. 반짝거리는 작은 것들 말이다.”

“별이요?”

“천만에. 금빛으로 반짝거리며 게으름뱅이들을 꿈꾸게 하는 그 작은 것들 말이다. 현대 난 착실한 사람이거든! 꿈이나 꾸고 있을 시간 없어.”

“아! 별이요?”

“그래 별.”

“오역 개나 되는 별 가지고 뭐 해?”

“오역 일백육십이만 이천칠백서른하나야. 나는 착실한 사람이야. 아주 정확하지.”

“그 별들 가지고 뭐 하는데?”

“뭘 하느냐고?”

“응.”

“아무것도 안 해. 그저 소유할 뿐이지.”

“별을 소유해?”

“그래.”

“하지만 전에 만난 왕은...”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지배’하지. 그건 아주 다른 얘기야.”

“그럼 그 별들을 소유해서 뭐해?”

“나를 부자로 만들지.”

“부자 되면 뭐해?”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사는 데 쓰지.”

‘이 아저씨 생각하는게 술 아저씨 수준이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질문을 계속했다.

“별들을 어떻게 소유해?”

“별들이 누구 거지?”

투덜대며 사업가가 되물었다.

“몰라. 그 누구 것도 아니지.”

“그래서 내 것이라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면 충분해?”

“물론이지. 네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그건 네 것이지.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면 그건 네 섬이고. 네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면 특허를 내. 그럼 그것이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거야. 나보다 먼저 별을 가지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렇군. 그런데 별 갖고 뭘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관리하지. 세고 또 세지.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나는 착실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그래도 만족할 수 없었다.

“난 머플러를 가지고 그걸 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 또 한 송이 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꽃을 따서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팔 수 없잖아!”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종이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서랍에 넣고 잠가 버리지.”

“그게 다야?”

“그게 다지!”

재미있으면서 꽤나 시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물을 줘. 세계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는데 매주 청소를 해주지. 꺼진 화산도 청소하고. 누가 알아. 내가 화산과 꽃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이롭지.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이로울 게 없어...”

사업가는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떠나 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완전 희한해.’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했다.



XIV

다섯 번째 별은 무척 신기했다. 모든 별들 가운데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지기 한 사람이 있을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지만,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이 아저씨도 엉뚱할지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쟁이나 사업가 또는 술 아저씨보다는 낫겠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 가로등을 켜면 별 하나 또는 꽃 한 송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셈이니. 가로등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을 재우는 거지. 이거 정말 멋진 일이군. 멋지니까 정말 쓸모 있는 일이지.’

어린 왕자는 행성에 다가가서 가로등지기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아저씨. 가로등을 막 끄던데 왜 그런 거지?”

“그건 명령이야. 좋은 아침.”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명령이라니, 그게 뭔데?”

“내 가로등을 끄는 거지. 좋은 밤.”

그리고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왜 지금 막 다시 켰어?”

“명령이야.”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알고 자시고 할 거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좋은 아침.”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리고 가로등을 켰다.

그리고 나서는 붉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정말 고된 일이야. 전에는 순탄한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켰지. 그래서 낮 동안은 쉬고 나머지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럼, 그 후 명령이 바뀐 건가?”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비극이지! 이 별은 해가 갈

수록 점점 빨리 돌아. 그런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으니!”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일 분에 한 번씩 도니 일 초도 실 틈이 없어. 일 분마다 한 번씩 켜고 끄는 거지.”

“그것참 이상하네! 아저씨네 별에선 하루가 일 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는 지 벌써 한 달이 됐으니까.”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한 달이나?”

“그래. 삼십 분이니까, 삼십 일이지! 좋은 밤.”

그러고는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명령에 그토록 충실한 그 가로등지기가 마음에 들었다. 지난날 의자를 끌어당겨 석양을 보러 가던 옛날이 생각났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이거 알아? ...쉬고 싶을 때 실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언제나 쉬고 싶지.”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충실하면서도 게으를 수 있다.

어린 왕자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으니까 세 발짝만 옮겨 놓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어. 언제나 햇별을 쫓려면 천천히 걷기만 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되는 거야. 쉬고 싶으면 걸어...그럼 원하는 대로 해가 길어
질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 걸. 내 평생소원은 잠자는 거야.”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안됐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지. 좋은 밤.”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러고는 가로등을 켜다.

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아저씨는 다른 모든 사람들, 왕, 히영쟁이, 술 아저씨
또는 사업가로부터 멸시받겠지. 하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이
지 않는 사람은 이 아저씨뿐이야. 그건 이 아저씨가 저 자신
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이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을 해
봤다.

‘친구 삼을 만난 건 이 아저씨뿐인데. 하지만 아저씨별은
너무 좁아. 두 사람만 돼도 설 자리가 없거든...’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 있다. 자신이 이
축복받은 별에 미련을 떨칠 수 없는 것이 특히 스물네 시간
동안 천사백사십 번 해가 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XV

여섯 번째 별은 열 배나 더 컸다. 이 별에는 굉장한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았다.

“이런! 탐험가가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 그는 크게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에 걸터앉아 잠깐 숨을 돌렸다. 벌써 여행을 꽤 했나 보다!

“어디서 오는 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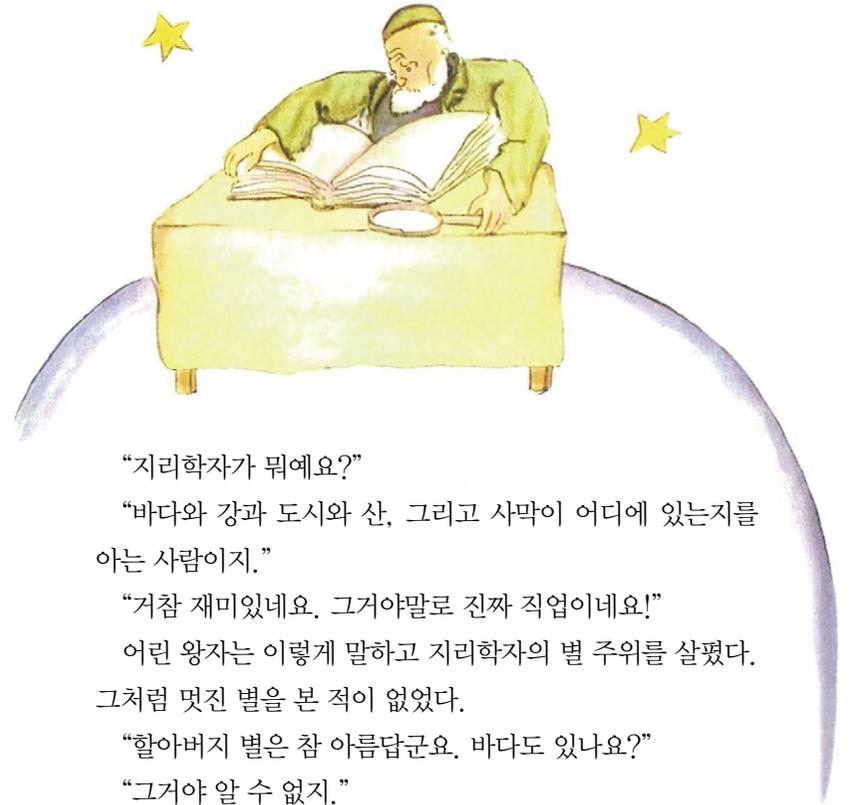
노인이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노인이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거참 재미있네요.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이네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지리학자의 별 주위를 살폈다. 것처럼 멋진 별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답군요. 바다도 있나요?”

“그거야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난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지리학자라면서요?”

“그래.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내겐 탐험가가 하나도 없거든. 도시, 강, 산, 바다, 태양, 사막을 세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몫이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산책할 여유가 없지. 서재를 떠나지 못해.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지.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지. 탐험가의 기억 중에 지리학자가 흥미로워하는 게 있으면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하지.”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하면 지리책이 큰일 나지.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둘로 보이거든. 그러면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두 개의 산을 표시할 수도 있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형편없는 탐험가가 될 수 있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탐험가의 품행이 양호하다고 알려지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지.”

“가서 보나요?”

“가지 않아. 너무 번다하니까.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면 커다란

암석을 가져오라고 시키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너는 탐험가야! 네 별 이야기를 자세히 해 보거라!”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기록한다. 이후 증거가 확보되면 기다렸다가 잉크로 적는 것이다.

“자, 어떤 별이지?”

지리학자가 물었다.

“아, 내 별은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무척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어요. 둘은 활동 중이고 하나는 꺼져 있지요. 하지만 누가 알아요.”

“누가 알겠니.”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하나 있어요.”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제일 예쁜 꽃인데!”

“꽃들은 덧없는 것이니까.”

“‘덧없는’ 게 뭐예요?”

“지리책은 모든 책 가운데 가장 귀중한 책이야. 지리책은 유행에 뒤지는 법이 없지. 산이 위치를 바꾸는 건 매우 드물지. 바다가 바닥을 보이는 일도 그렇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록하지.”

“하지만 꺼진 화산들이 깨어날 수도 있어요. ‘덧없는’ 게 뭐예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화산들이 꺼져 있든 깨어 있든 지리학자에겐 마찬가지로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지.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덧없는’ 게 뭐냐고요?”

일단 질문을 꺼내면 결코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되물었다.

“그건 ‘곧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뜻이란다.”

“내 꽃이 곧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고요?”

“그럼.”

‘자신의 꽃이 덧없는 존재라니?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가시 네 개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 꽃을 내 별에 혼자 내버려두고 오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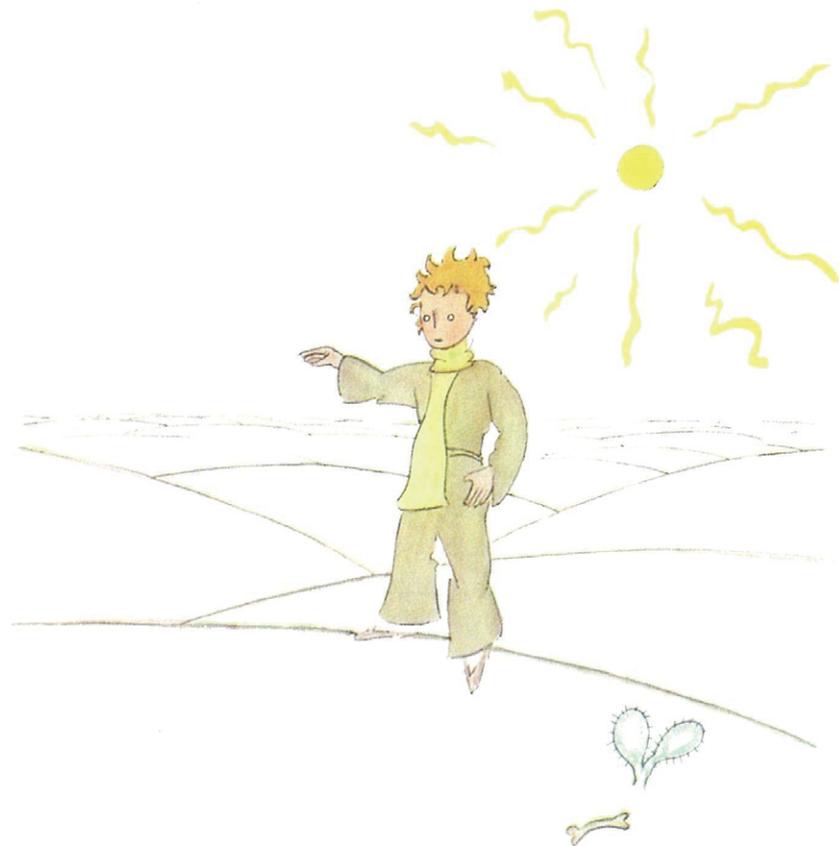
어린 왕자로서는 처음으로 느끼는 후회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 생각에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지구라는 행성으로 가 봐. 평판이 좋으니...”

그래서 어린 왕자는 떠났다. 자기 꽃을 생각하면서.





XVI

그렇게 해서 찾아온 일곱 번째 별이 바로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런 행성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백열한 명의 왕(물론 흑인 왕들까지 합쳐서)과 칠천 명의 지리학자와 구십만 명의 사업가, 칠백오십만 명의 술 아저씨, 삼억 일천 백만 명의 뺑쟁이 아저씨들, 즉 대략 이십억 가량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당신에게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여섯 대륙을 통틀어 사십육만 이천 오백 십일 명으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가로등지기 군대를 두어야 했다고 말해 두는 게 좋겠다.

좀 멀리서 보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부대의 동작은 오페라 발레처럼 질서정연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뉴질랜드

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지기 차례였다. 이들은 가로등을 켜고 나서는 잠자리 갔다. 그리고 나면 중국과 시베리아 가로등지기들이 입장하여 춤춘다. 이들 역시 무대 뒤로 살짝 몸을 감추면 러시아와 인도 가로등지기가 나온다. 그다음 순서는 아프리카와 유럽 가로등지기들, 다음 차례는 남아메리카 가로등지기들, 또 그 다음은 북아메리카 가로등지기 순서였다. 그런데 이들의 무대 입장 순서는 뒤바뀌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장엄한 광경이었다.

오직 북극의 유일한 가로등지기와 남극의 동료만이 한가롭고 태평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 년에 두 번 일했다.



XVII

재치 부리다 보면 조금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나의 가로 등지기 이야기도 그렇게 정직했던 것은 아니다.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지구에서 매우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지구의 이십억 인구가 어떤 모임에서처럼 서로 바짝 붙어 선다면 가로세로 이십 마일짜리 광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태평양 한가운데 가장 작은 섬에 전 인류를 쌓아 놓을 수도 있으리라.

어른들은 물론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바오밥나무처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 보라고 충고해야 한다. 어른들은 정말 숫자를 좋아하니

까. 그럼 이들은 기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지켜온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지어다. 참으로 쓸데없는 것이다. 내 말을 믿으면 된다.

일단 지구에 내려선 어린 왕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놀랐다. 행성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벌써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이때 달빛 고리 같은 것이 모래 속에서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영겁결에 말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지금 내가 어느 행성에 떨어진 거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 위에. 여긴 아프리카고.”

뱀이 대답했다.

“그래...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다랗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환히 빛나는 건 언젠가 저마다 자기 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아.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그런데 참 멀기도 하군!”

“아름다운 별이구나. 여긴 뭐 하러 왔는데?”

뱀이 말했다.



“넌 희한한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마침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떤 꽃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대답했다.
그리고 서로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은 좀 외로운데...”
어린 왕자가 마침내 다시 입을 떼었다.
“사람들끼리도 외롭긴 마찬가지란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보았다.
“넌 희한한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세.”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한 번 미소 지었다.
“넌 그렇게 세지 않아...발도 없고...여행도 못 하겠다...”
“배보다 더 멀리 널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 발목을 금팔찌처럼 휘감고 말했다.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면 그가 나왔던 땅으로 되돌아가
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참 딱하구나. 그렇게 약한 몸으로 이 삭막한 지구에 왔으

니. 너의 별이 너무 그리울 때면 언제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난…”

“아! 잘 알겠어. 그런데 넌 줄곧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니?”

“난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XVIII

어린 왕자가 사막을 건너면서 만난 것은 오직 꽃 한 송이 뿐이다. 꽃잎 세 개짜리 아무것도 아닌 꽃 한 송이…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어린 왕자가 얄전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대상 한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고? 예닐곱 명 정도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보았지! 하지만 어디 가야 만날지는 전혀 알 수 없지.

사람들은 바람 따라 떠돌지. 사람들은 뿌리가 없단다. 그래서 몹시 곤란해하는 거란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말했다.



XIX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알고 있던 산이라곤 자신의 무릎밖에 차지 않는 화산 세 개가 고작이었다. 사화산은 결상 삼아 앉곤 했었다. 어린 왕자는 지레짐작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사람들 모두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한 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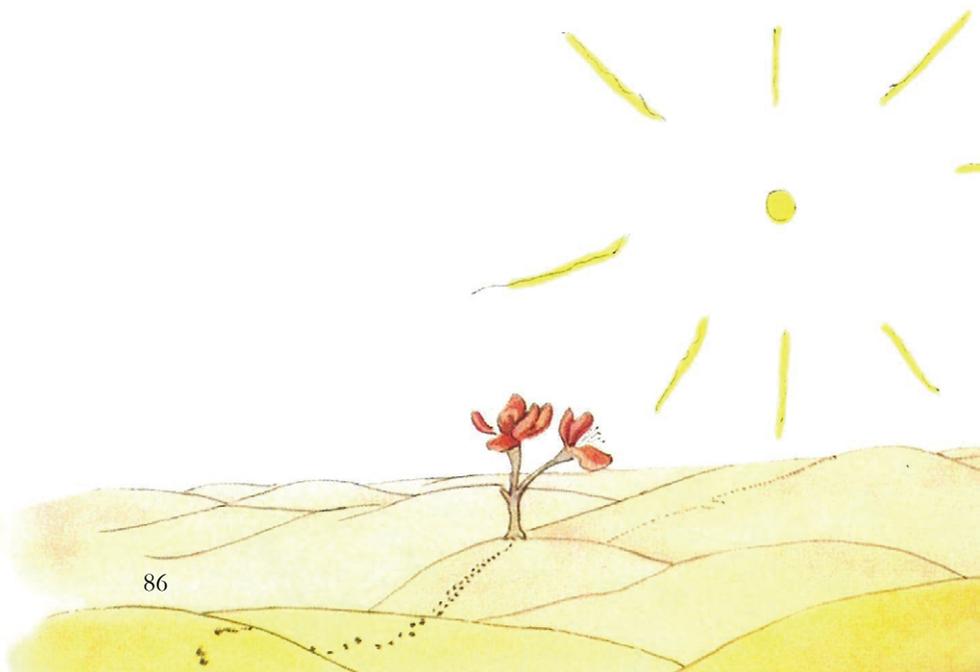
그는 무턱대고 말해 보았다.

“안녕...안녕...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누구세요…누구세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친구해 주세요. 난 외로워.”

그가 말했다.

“난 외로워…난 외로워…난 외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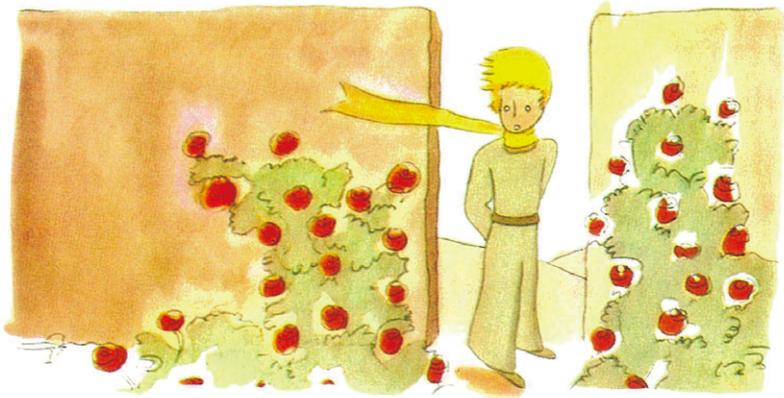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희한한 별이야! 모두 메마르고, 모두 뽀족하고, 모두 험해.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남의 말만 되풀이하잖아… 내 별엔 꽃 한 송이가 있어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 왔는데…’



XX



그러나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밭, 바위더미, 눈길을 헤매고서야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길은 모두 사람 사는 곳으로 통하는 법이다.

“안녕.”

그가 말했다.

장미가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자신의 꽃과 닮아 있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꽃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장미야.”

꽃들이 말했다.

“아!”

어린 왕자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어린 왕자의 장미는 자기 품종으로는 자신이 유일한 꽃이라 말해 왔으니까. 그런데 이 정원 하나에만도 똑 닮은 꽃들이 오천 송이가 피어 있으니!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속상해하겠지... 심하게 콜록거리면서 창피당하지 않으려 죽는 시늉을 할 걸. 그러면 나는 돌

보는 척해줘야지. 안 그러면 내게 무안을 주려고 정말 죽어 버릴지도 몰라…’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뿐인 꽃을 갖고 있어 부자라고 믿었는데. 그저 흔한 꽃을 갖고 있다니. 장미꽃 한 송이, 무릎밖에 차지 않는 화산 세 개, 그것도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져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이걸로 진짜 위대한 왕자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XXI

그때 여우가 나타난 것이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얇전히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 전의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너는 누구지?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그래서 어린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이리 와 나와 놀자. 난 진짜 슬퍼...”
어린 왕자가 제의했다.
“너하고 못 놀아.”
여우가 말했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본 후에 그는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야?”
“넌 여기 애가 아니구나. 뭘 찾는 거니?”

여우가 물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뭔데?”

“사람들은 소총으로 사냥하지. 정말 성가셔! 닭을 기르기도 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지. 닭을 찾는 거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야.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새까맣게 잊혀진 일이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겐 세상에 흔한 다른 소년들처럼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네가 필요치 않아. 너도 물론 내가 필요 없겠지. 난 너에겐 세상에 흔한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져. 너는 내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년이 되고 나는 네게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기 시작하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이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렇지도 모르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별별 것이 다 있으니까...”

“아, 그게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해했다.

“그럼 다른 별이라고?”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들 있니?”

“아니, 없어.”

“거참 흥미로운데!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건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래. 그래서 난 좀 따분하지.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환해질 거야. 많은 발자국과 다른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에 나는 땅 밑으로 기어들겠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내겠지! 그리고 한 번 봐! 저기 밀밭 보이지? 난 빵은 먹지 않지. 밀은 내겐 아무 쓸모 없지.



밀밭을 보아도 아무 생각 없지. 그래서 서글퍼! 그런데 네 머리칼은 금빛이지. 그러니 네가 나를 길들이면 정말 신나겠지! 밀도 금빛이지. 너를 생각하게 되겠지. 그럼 난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되겠지…”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바라보더니, “제발…날 길들이 줘!” 하고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찾아볼 친구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아.”

“길들이는 것들만 알 수 있다니까.”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뭘 알려고 시간을 들이지 않아. 가게에서 완제품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 이제



이를테면,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친구도 없는 거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정말 참을 줄 알아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나와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결
눈질로 널 볼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원천이지.
그래도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으라고…”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행복
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
지. 네 시에는 불안해서 안절부절못할 거야. 난 행복이 얼마
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에
옷을 입혀야 할지 모를 거야. 의례가 필요하거든.”

“의례가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새까맣게 잊혀진 일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
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례가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아가

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 되는 거
지!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하고,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날마다 그게 그거고, 그럼 난 휴일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
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아! 눈물이 나오려고 해.”

“네 잘못이야.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
만 네가 널 길들여 달라고 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헌데 넌 울려고 그러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넌 하나도 득 본 게 없잖아!”

“나도 득 본 게 있어. 밀밭 색깔 덕분이야.”

여우가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다시 가서 장미들을 봐. 네 장미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장미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인
사를 해 줘. 그러면 내가 네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꽃들에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의 내 여우와 같아. 내 여우는 세상에 흔한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지.”

그러자 장미꽃들은 무척 당황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비어 있지.”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누구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물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겐 내 꽃도 너희들과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내겐 그 꽃 한 송이가 너희들 모두보다 중요해. 내가 물을 준 꽃이고, 유리뿔개를 씌워 준 꽃이기 때문이지. 내가 바람막이로 막아 준 꽃이기 때문이지. 내가 벌레를 잡아 준(나비가 되라고 두세 마리 남겨둔 것 말고) 꽃이기 때문이지. 불평을 들어 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심지어 때로는 조용히 침묵을 기다려 준 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 장미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단순하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본질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본질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잊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가 따라 말했다.

“네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네 꽃에 바친 시간이란단다.”

“내가 내 꽃에 바친 시간이라...”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언제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잊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가 되풀이했다.



XXII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승객들을 천 명씩 내보내고 있지. 그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들을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또 어떤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그때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치듯 포효하자 통제실이 요동쳤다.

“저 사람들 참 바쁘군. 무얼 찾아가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관사 자신도 몰라.”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불을 켜 두 번째 급행열차가 포효했다.

“벌써 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야.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지.”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살던 곳이 맘에 안 들었나?”

“자기 사는 곳은 결코 맘에 들지 않는 법이지.”

그러자 불을 켜 세 번째 급행열차가 천둥을 울렸다.

“처음 지나간 승객들을 쫓아가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쫓지 않아. 열차 안에서 잠자지 않으면 하품이나 해대지. 아이들만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지.”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애들만이 자신들이 무얼 찾는지 알지. 아이들은 형꼴 인형에 시간을 바치지. 그래서 인형이 매우 소중한 것이 되지. 인형을 빼앗기면 당연히 울어 대고...”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애들은 운이 좋아.”

선로통제원이 말했다.



XXIII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그는 갈증을 달래 주는 개량 알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
에 한 알만 먹어도 갈증을 느끼지 않는단다.

“그런 거 왜 팔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시간이 엄청 절약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해 봤지. 매주
오십삼 분씩 절약된다네.”

상인이 말했다.

“그 오십삼 분으로 뭘 하지?”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에게 오십삼 분이 주어진다면 샘을 향해 아주 천
천히 건졌어...’

어린 왕자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XXIV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 난 지 여드레째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 두었던 마지막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며 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 네 경험담은 참 멋있구나. 하지만 아직 비행기를 수리하지 못했어. 마실 물도 떨어지고, 샘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하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친구 여우 말인데…”

“꼬마야, 지금 여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목말라 죽을 상황인데…”

그는 죽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대답했다.

“친구를 얻은 건 좋은 일이지, 죽는 일이 있어도, 여우 친구를 얻어 정말 기뻐…”

‘어린 왕자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지.’ 나는 생각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모르는지, 약간의 햇빛만으로도 충분하니…’

그런데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반응을 보였다.

“나도 목말라…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실망스런 표정을 보였다. 광활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서는 건 멍청한 짓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을 말없이 걷고 나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나는 열이 조금 나고 있었으므로, 마치 꿈속에서 그 별들을 보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너도 목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야…”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그에게 물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어린 왕자는 지쳐 있었다. 그는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이 있어서...”

나는 “그럼!” 하고 답했다. 그러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늘 사막을 사랑해 왔다. 모래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 침묵 속에 빛나는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문득 사막의 그 신비로운 광채가 이해되자 나는 놀라고 말았다. 어린 시절 나는 고가에서 살았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집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도 보물을 찾아낼 수 없었고, 어쩌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 전설로 집 안 전체가 매혹에 휩싸이는 것이었다. 내 집은 그 가슴 깊숙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걸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생각이 같아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지구에는 이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이 없을 듯했다. 달빛 아래 그 창백한 이마, 그 감긴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살짝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내비치고 있어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몹시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야, 잠들어 있을 때에도 등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 모습 때문이지...’

그러자 그가 더욱 더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여겨졌다. 등불을 열심히 지켜야겠어. 한 줄기 바람에도 꺼져 버릴 테니...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XXV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로 기어들어 가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얼 찾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쩔 줄 몰라 제자리를 뱅뱅 맴돌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도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 우물들과 닮은 구석이 없었다. 사하라 우물들은 모래 속에 뚫린 구멍일 뿐이다. 그 우물은 마을 우물 같았다. 그러나 그곳엔 마을이라곤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상한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없는 게 없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도...”

그는 웃으며 줄을 잡아 도르래를 당겼다.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물을 깨우니 노래 부르네...”

나는 어린 왕자가 애쓰는 걸 원치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말했다.

“네겐 너무 무거워.”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가까지 들어 올렸다. 나는 두레박이 넘어지지 않게 잘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 노랫소리가 계속 들리고, 아직도 출렁이는 물속에서 출렁거리는 해가 보였다.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 좀 줘...”

그래서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그건 무슨 축제처럼 달콤했다. 과연 이 물은 보통 음료와는 다른 무엇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서 벌인 행진과 도르래가 내는 노랫소리, 내 두 팔로 이룬 노력의 소산이었



그는 웃으며 줄을 잡아 도르래를 당겼다.

다. 마치 선물처럼 마음에도 좋은 것이었다. 어린 소년 시절에도 크리스마스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 성가와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 때문에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별 사람들은 한 정원에 장미꽃을 오천 송이나 가꾸지만 정원에서 자신들이 찾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찾아낼 수 없고말고...”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장미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찾아낼 수도 있어...”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하지만 눈은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지.”

나도 물을 마신 뒤였다. 숨이 편해졌다. 해가 뜰 무렵 모래는 꿀 빛이다. 나는 이 꿀 빛에도 행복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해야 했는지...

“약속 지켜.”

어린 왕자가 내게 살며시 말했다. 그도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양 부리망 말이야…난 그 꽃에 책임이 있잖아!”

나는 대충 그려 두었던 그림들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나무는 배추 닮았어…”

“아, 그래?”

바오밥나무 그림을 으스대던 나 아니던가!

“아저씨 여우는 말이야…이 귀 좀 봐…약간 뿔 같기도 하고…너무 길어!”

그러고는 그는 또 웃었다.

“꼬마야, 좀 심하구나.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보아 뱀 말고는 그릴 줄 모른다니까.”

“아, 괜찮아. 아이들은 알아볼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그래서 연필로 부리망을 그렸다. 그걸 어린 왕자에게 주려니 가슴이 메어 왔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그러나 그는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알지,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내일이면 일 년이야…”

그러고는 잠시 말이 없다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는데…”

그리곤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또다시 까닭 모를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그러면서도 뭔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구나. 일주일 전 너를 만난 날 아침,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을 홀로 그렇게 걷고 있었던 것이. 네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던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나는 덧붙여 물었다.

“아마 일주년이라 그런 거겠지? …”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진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히는 것은 그렇다는 뜻 아닌가?

“아! 난 두렵구나…”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기계 고치던 데로 돌아가.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릴게. 내일 저녁 다시 와…”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여우가 떠올랐다. 길들여지면 조금이나마 눈물을 흘릴까 우려되는 것이다…



XXVI

우물 쪽으로는 낡아서 무너져 내린 돌담이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 어린 왕자가 다리를 늘어뜨린 채 그 위에 걸터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들렸다.

“그래 기억 안 나니? 정확히 여기는 아냐!”

그가 말했다.

다음과 같이 대꾸하는 것을 보니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답하는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닌걸...”

나는 담벼락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하는 것이었다.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모래 위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

면 알잖아.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벼락에서 이십 미터쯤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네 독은 좋은 거지? 확실히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하는 건 아니지?”

나는 조바심에 멈춰 섰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럼 이제 가 봐.”

그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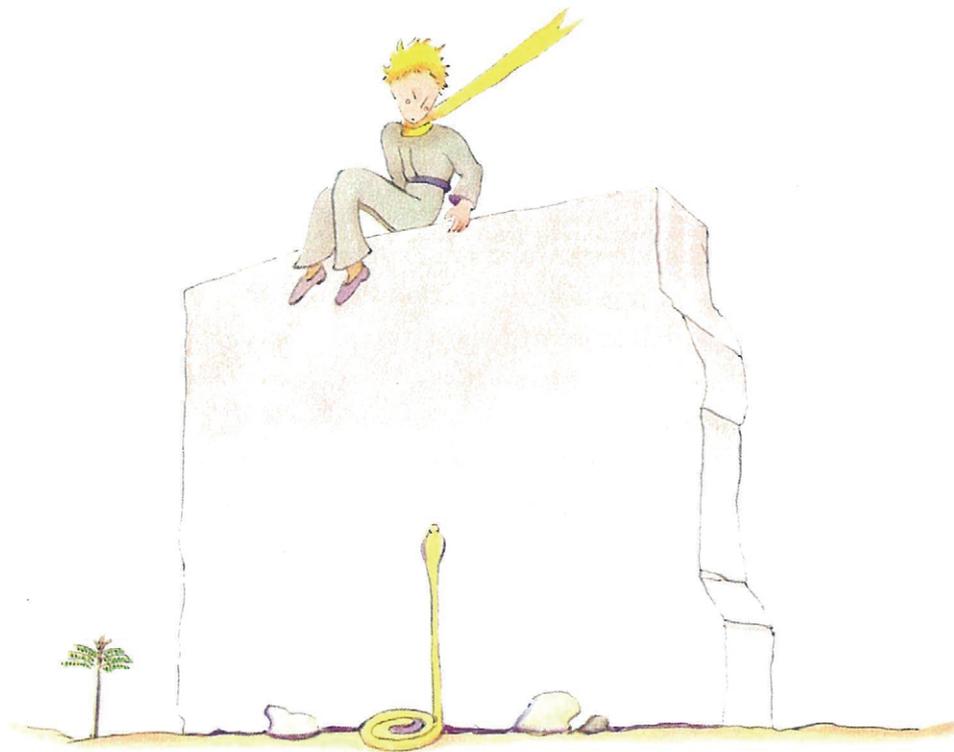
“내려가게!”

그래서 나도 담벼락 아래를 내려다보다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삼십 초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었다. 권총을 꺼 내려 호주머니를 뒤지며 곧장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소리에 그 뱀은 분수대 물줄기 꺼지듯 모래 속으로 스프르르 미끄러져 들어가 가벼운 췌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담벼락에 이른 그 순간 나는 그저 눈처럼 창백한 내 어린 친구를 겨우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젠 뱀하고도 말을 다 하고!”

나는 그가 늘 목에 두르고 있던 그 금빛 머플러를 풀어 주었다.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 주고 물을 먹여 주었다. 그러나



“그럼 이제 가 봐. 내려가게!” 그가 말했다.

감히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다 내 목을 두 팔로 껴안았다. 카빈 소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 가슴처럼 그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 기뻐. 비행기 고장 난 데를 알아냈으니. 아저씨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

“어떻게 알았니?”

천만다행으로 수리에 성공했다고 말해주려던 참인데 이렇게 말하다니!

내 물음에는 아랑곳없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우울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기도 하고…”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그를 어린아이 안듯이 품에 안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붙잡아 볼 수도 없이 깊은 구멍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득한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넣어 둘 상자도 있고. 부리망도…”

그리고는 우수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점차 그의 몸이 더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애야, 무서웠던 게로구나…”

물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살며시 웃었다.

“오늘 저녁이 더 무서울걸…”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오싹해졌다. 이제는 그 웃음소리를 영영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 하리라 문득 깨달았던 것이다. 그 웃음은 내게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꼬마 친구,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으로 꼭 일 년 됐어. 내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내가 내린 그 장소 바로 위에 오게 될 거야…”

“애야,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 아니니…”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로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고 치자고. 밤에 하늘만 바라봐도 감미로울 거야. 별마다 꽃이 필 테니.”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로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랑 밧줄 때문에…기억하지…참 좋았잖아.”

“그럼…”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리킬 수 없어. 그게 더 잘된 거지. 내 별은 아저씨한테 여러 별 중 어느 한 별일 거야. 그럼 아저씨 어느 별을 봐도 돼…별마다 아저씨 친구가 되겠지. 그리고 아저씨에게 선물 하나 할게…”

그는 다시 웃었다.

“아, 꼬마 친구야, 꼬마 친구야, 그 웃음소리를 듣고 싶구나!”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물도 그렇고…”

“무슨 말이야?”

“사람들에겐 별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별은 아니지. 여행자에게 별은 길잡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엔 그저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고. 또 다른 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돈이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말이 없지. 아저씨가 보는 별은 다른 사람들하곤 좀 다를 거야…”

“무슨 뜻이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어느 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어느 별에서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에게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셈이지!”

그러고는 다시 웃었다.

“그래서 슬픔이 가시면(슬픔은 언젠가 가시게 마련이니까)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 언젠까지나 친구로 남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고. 그래서 가끔 뽀

히 창문을 열어 놓겠지...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무척 놀라겠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줘. '그래.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게 되지!' 그들은 아저씨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겠지. 난 그럼 아저씨에게 너무 심한 장난을 친 것 같은데..."

그러고는 다시 웃었다.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 무더기를 아저씨에게 준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곧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밤은...알지...오면 안 돼."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파 보일 거야...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늘 그래. 그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네 곁을 떠나지 않을 테야."

그러나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건...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뱀은 심술쟁이야. 괜히 물기도 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엇인가 그는 안심이 되는 것 같았다.

"사실 두 번째 물 땀 독이 없대..."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는 잔결음으



로 매몰차게 걷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어! 아저씨 왔네…”

그러고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괴로워했다.

“아저씨가 잘못된 거야. 마음 아플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일 테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알지. 거긴 너무 멀거든. 이 몸을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몸이란 벗어 제친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약간 기가 죽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기운을 차렸다.

“멋있을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란 별은 모두 녹슨 도르래 달린 우물이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 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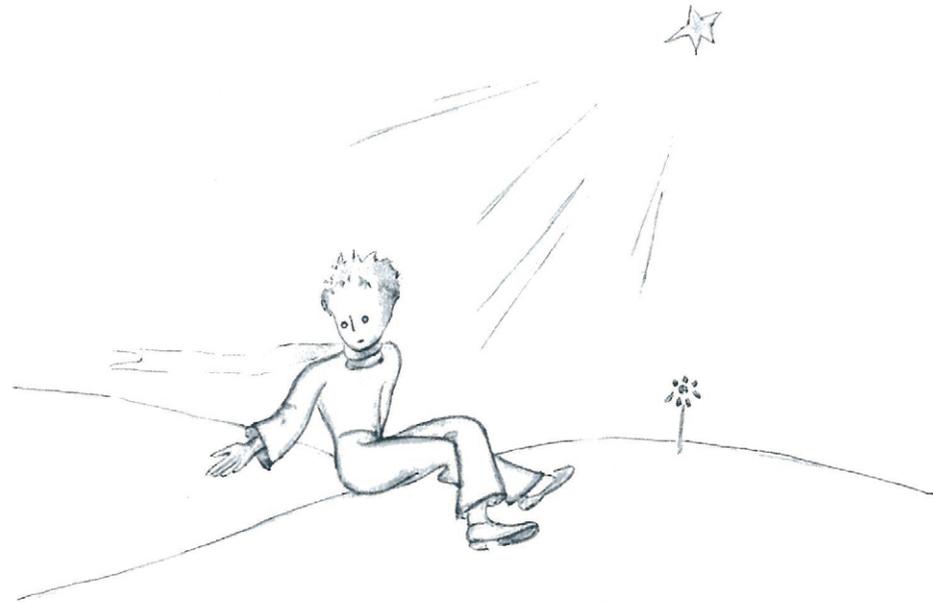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재미있겠어! 아저씨 오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고 난 오억 개의 샘물을 가지게 될 테니…”

그러고는 그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으니까…

“여기야. 한 발짝만 걷게 내버려 둬.”

그러더니 그는 무서웠는지 그 자리에 앉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내 꽃 말인데…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몹시도 약해! 몹시도 순진하고, 고작 별것도 아닌 네 개의 가시로 세상과 맞서 몸을 지키려 하고…”

나는 더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이제 끝났어…”

어린 왕자는 좀 더 망설이다 다시 일어섰다.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한 줄기 노란빛이 반짝거렸을 뿐이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가 서서히 쓰러졌다, 나무가 쓰러지듯. 모래밭이라 소리도 나지 않았다.



XXVII

이제는, 물론, 벌써 육년 전 일이 되었다…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으나 그들에겐 그냥 이렇게 말했다.

“피곤해서…”

이제는 슬픔도 조금 가라앉았다. 다시 말해…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 것을 잘 알고 있다. 해가 떴을 때 그의 몸뚱이를 볼 수 없었으니까. 그리 무겁지도 않은 몸뚱이었지…그래서 밤이면 즐겨 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마치 오억 개의 방울 같은 별들…

그런데 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린 왕자에게 그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살며시 넘어졌다.

려 준 부리망에 가죽 끈 달아 주는 걸 깜박 잊은 것이다! 어린 왕자가 그걸 양에게 씌어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본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양이 꽃을 먹어 버렸으려나...’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천만에, 먹지 않았겠지!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을 유리뿔개 안에 모셔 두고 양을 잘 감시하겠지...’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별들 모두 다정하게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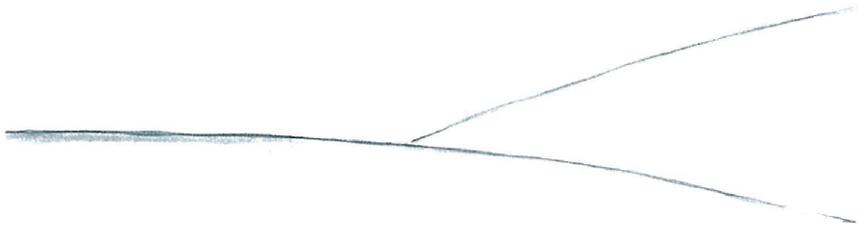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어쩌다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럼 끝장나지! 어느 날 저녁 유리뿔개를 잊어버리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빠져나가거나 하면...’ 그러면 방울들 모두 눈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나 나에게나. 알 수 없는 어딘가에서 낮선 양 한 마리가 한 떨기 장미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온통 변해 버리니...

하늘을 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삼라만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어른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리니!



이 그림은 나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 풍경과 같은 그림이지만 여러분에게 제대로 보여 주고자 다시 한 번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여기다.

언제고 당신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자신 있게 이 풍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유심히 봐두시길. 그리고 혹시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부디 서두르지 말고 잠시라도 별 밑에서 기다려 주시길!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가 웃고 있고, 머리칼은 금빛이고, 묻는 말에 대답이 없으면 당신은 그의 정체를 알리라.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날 이토록 슬프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바로 편지를 보내 주시길. 어린 왕자가 돌아왔노라고...



역자 후기

어린 왕자의 변신 이야기

인생은 여행입니다.
사랑은 여행입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나'에서
'남을 위한 나'를 찾아가는 삶의 여행입니다.

『어린 왕자』는 두 사람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진실을 찾아 나선 어린 왕자의 구도 여행이고, 또 하나는 어린 왕자의 기원을 찾아가는 작가 생텍쥐페리의 여행입니다. 비행사의 분신이기도 한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라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친구 삼은 여우와 뱀과의 예기치 못한 만남을 통해 우정과 사랑이라는 마법의 지혜를 얻어 자신의 별로 돌아갑니다.

화자인 비행사는 새로운 항로 탐사를 위해 비행하던 중 사막에 불시착하여 기이한 모습의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들려주는 여행담에 자신의 마음을 열러가는 화자는 뱀의 도움으로 무거운 육신을 버리고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어린 왕자의 기원과 신비가 자신 마음에 있음을 알고 일상의

로 귀환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에는 구도의 여행을 나선 어린 왕자와 이 어린 왕자의 정체를 탐구하는 어른의 여정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은 헤어지지만 서로 길들어 화자는 별에 핀 꽃을 보며 별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어린 왕자는 사막의 숨겨진 우물을 보고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도르래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린 왕자는 누구나 그러하듯 순수하기만 한 어린이가 아니었지요. 사랑을 모르던 그는 자신을 까탈스럽게 대하는 장미가 귀찮아져 새로운 친구와 일자리를 구하고 깨달음도 얻을 겸 여섯 별을 유람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왕, 허영쟁이, 술 아저씨, 사업가, 지리학자를 만나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로등지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대화가 불가능했기에 이 어른들과 친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별 지구에 도착하여 처음 만난 뱀은 어린 왕자를 만나자 그 순수함을 보고 어린 왕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보내 주겠다며 다시 찾아오라 합니다. 꽃은 어린 왕자

에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제자리를 땀들며 고통스러워한다고 알려 주었죠. 모래와 바윗덩이와 눈밭을 헤치고 마주한 정원에는 무려 오천 송이의 장미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자기 별에 단 한 송이뿐인 장미를 갖고 있어 부자라고 믿었던 어린 왕자는 장미 한 송이와 세 개의 화산으로는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만 풀밭에 누워 울고 말았습니다.

거창하고 심오한 것을 찾아 위대한 왕자가 되고자 했던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장미에 바친 시간 때문에 그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한 송이 장미나 물 한 모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구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나로 변해 장미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우와의 이별은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호사스럽지만 연약하고 다정한 장미를 다시 찾는 여행을 결심합니다. 무거운 몸뚱이로는 너무 힘들고 먼 여행입니다. 어린 왕자는 뱀의 호의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몸을 버리고 생텍스 아저씨가 그려 준 양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섯 소행성과 지구 방문 여행은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은 생텍스의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것뿐입니다(이 이야기는 어린 왕자 시리즈

전편에 해당하는 생텍스의 『사람들의 땅』 제7장에 소개되어 있죠). 사막 한복판에서의 견딜 수 없는 고독과 갈증과 사투를 벌이던 생텍스의 마음에 일어난 사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생텍스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마음으로 본 결과 자신은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만 존재하며 우리는 그 관계의 매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깨칩니다. 아저씨 생텍스가 어른이라는 자신의 껍데기 속에 잠자고 있던 마음속의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공에 전념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사랑도 우정도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친구를 돈으로 살 수 없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땅』 마지막 잠언을 상기하며 어린 왕자의 여정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뿐입니다.

‘정령’이 점토에 숨결을 불어넣는다면, 오로지 그러한 정령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작가 연보

- 1900 6월 29일 앙투안 마리 로제 드 생텍쥐페리Antoine Marie Roger de Saint-Exupéry 리옹에서 출생. 아버지 장 마리 드 생텍쥐페리 자작은 명문가 출신의 보험감독관, 어머니 마리 부아예 드 풍스콜롱브 역시 프로방스 명문가 출신. 어머니의 정직함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침.
- 1902 동생 프랑수아 출생.
- 1904 7월 아버지 장 마리 기차에 치여 사망.
- 1908 리옹의 '몽테 생 바르텔미' 학교 입학.
- 1909 아버지 고향 르망으로 이주, 예수회 운영 '노트르담 드 생트 크루아 콜레주' 입학
- 1912 생모리드레망에서의 휴가. 앙베리외앙뷔제에 건립된 에어돔의 매력에 빠짐. 조종사 가브리엘 살베즈에게 편지를 보내 어머니가 자신의 비행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함. 첫 비행 경험.
- 1914 여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앙베리외앙뷔제 군병원 수간호사인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동생 프랑수아와 앙투안 예수회 소속 '노트르담 드 몽그레 콜

- 레주'로 전학.
- 1915 두 형제가 예수회 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자, 어머니가 스위스 프리부르의 마리아 형제회가 운영하는 현대식 창의적 교육 기관 '빌라 생장'으로 전학 보냄. 발자크, 보들레르, 도스토옙스키 탐독. 생텍스가 기억하는 유일한 학창 시절을 보냄.
- 1917 6월 밑바닥 점수로 바칼로레아 합격. 관절 류머티즘으로 동생 프랑수아 사망. 그 슬픔으로 성숙한 청년기를 보냄.
- 1919 '리세 생루이'에서 해군사관학교 입시 준비,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으나 문학 출제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여 백지 답안 제출하여 탈락. 파리 국립미술학교 건축과 청강생으로 15개월 수학.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 누계의 오페라『쿠오바디스』에 수 주간 출연함.
- 1921 스트라스부르 제2전투기 연대에 정비사로 입대. 자비로 로베라 아에비로부터 개인 교습. 군복무 중 사고로 영창에 갇다 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복무. 민간 비행면허 취득.
- 1922 프랑스 남부 이스트르에서 육군 비행 조종 생도로서 군용기 조종 면허 취득.
10월 예비 소위 임관. 장 프레보 추천으로 『르 나비르 다르장』(銀船)에 단편 「비행사」 게재. 제34비행연대 전투 중대 중위로 파리의 부르제 공항 근무. 시인 소설가

- 루이즈 드 빌모랭과 약혼.
- 1923 1월 부르제에서 추락 사고로 두개골 파열. 바레스 장군의 호의로 그의 꿈인 공군 입대를 이룰 수 있었으나 약혼녀 집안 반대로 3월 소위 예편. 루이즈와의 파혼.
- 1924 트럭 제조 회사 공장 대표 취임. 몽뤼송 지방 순회, 18개월 동안 단 한 대의 트럭 매출 올림. 산문 창작 시작.
- 1926 4월 라테코에르사 입사. 『야간비행』의 주인공 리비에르로 알려진 디디에 도라와의 만남. 11월 개인 비행기 수령.
- 1927 메르모즈, 기요메, 레크리뱅 등과 툴루즈-다카르 간 우편비행. 비투항 부족과의 화해 임무를 받고, 카프 쥐비 기착지 소장 취임. 주경야독으로 『남방 우편기』 집필. 사막 한가운데서의 고독 체험.
- 1929 3월 프랑스 귀국. 갈리마르에서 생텍쥐페리의 조종사로서의 사적인 감정과 생활을 표현한 『남방 우편기』 발표.
9월 남아메리카에서 메르모즈와 기요메 만나 파타고니아까지의 항로 개발에 기여.
- 1930 소네트 창작 위해 폴 도니의 장서 섭렵. 안데스 산맥 무착륙 비행 중 실종된 기요메의 구조 소식 접함. 그를 비행기에 태우고 멘도사를 거쳐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송. 코모도로 리바다비아-푼타아레나스 노선 개설 임무 수령.

- 1931 『야간비행』(앙드레 지드의 서문) 출간. 4월 12일 니스에서 ‘보쉬에 학교’ 교장 모리스 쉬두르 신부 주례로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권 지 7개월 된 콘수엘로 순신과 정식 결혼. 12월 『야간 비행』으로 페미니 문학상 수상.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에서 영화화되나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부인과의 불화 지속.
- 1932 에어프랑스 통합으로 ‘아에로포스탈’ 해체. 금전상의 궁핍에 따른 정신 불안으로 가장 불안하고 우울한 시절. 시험 비행 및 노선 탐사로 생계 유지. 집필과 기사 송고에도 주력.
- 1934 신설 에어프랑스 해외 홍보국 입사. 유럽, 북아프리카, 인도차이나 여행. 착륙 장치 개발 특허를 따냄. 『파리 수아르』 리포터로 베트남 취재.
- 1935 『파리 수아르』 리포터로 모스크바 취재. 에어프랑스 후원으로 ‘시문’기 구입 지중해 연안 탐사. 12월 30일 파리-사이공 비행기록을 세우기 위해 ‘시문’기로 이집트로 향하던 중 현지 시간 4시 45분 카이로에서 200킬로미터 지점, 리비아 사막 불시착. 5일 만에 베두인족에게 구조되어 『사람들의 땅』과 『어린 왕자』를 저술하는 계기가 됨.
- 1936 『랭트랭지장』 특파원으로 스페인 내란의 중심지 마드리드 전선 및 카탈루냐 지역 취재. 선배이자 친구 메르모즈 사망.

- 1938 미국-남미 대륙 최남단 항로 개발차 과테말라 기차.
이륙 중 속도 하락으로 추락, 중상 입음. 3월 28일 뉴욕으로 돌아가 요양. 이후 프랑스 귀국, 조종사로 일하며 틈틈이 써 놓은 『사람들의 땅』 원고 작성.
- 1939 『사람들의 땅』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소설 대상 수상. 미국에서 『바람과 모래와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 이달의 책 선정됨. 9월 4일, 예비역 대위 생텍쥐페리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동원되어 툴루즈 비행대 소속 교육장교로 임명됨. 정보부 제의를 거절하고 정찰 중대로 전속.
- 1940 제대 후 『성채』 집필 계획. 프랑스-독일 간의 '기이한 전쟁' 종식. 지중해 상공에서 우편비행의 동료 기요메, 탑승기 격추당해 사망. 12월 뉴욕으로 떠남.
- 1941 뉴욕 생활, 모국어 감각 상실을 우려하여 영어 사용 거부. 감독 장 르누아르 초청으로 할리우드 방문. 『사람들의 땅』 영화화 계획 발표.
- 1942 뉴욕의 어떤 식당에서 생텍스가 냅킨에 그린 어린아이 그림을 본 레이날 & 커티스 출판사의 커티스 히치콕의 권유로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 왕자』 집필 시작. 2월 『전시 조종사』 영어판 출간. 프랑스 출간본 판매 금지 조치.
11월 독일의 프랑스 점령에 맞서 미군 북아프리카 상륙. 12월 『뉴욕 타임스』에 「모든 곳에 있는 프랑스인에

- 게」라는 공개서한 발표. 2-33 중대 복귀 노력.
- 1943 2월 「어느 볼모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 3월 『어린 왕자』 프랑스어 및 영어로 출간. 5월 『어린 왕자』 한 부를 품에 지니고 미국 출발.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 성공으로 알제의 2-33 중대 정찰 비행단에 재편입 교섭, 미군 지휘하의 우즈다 주둔 편대 편입. 7월 편대 튀니스로 이동.
7월 21일, 론 계곡 상공 비행 시 미숙함이 드러나 연령 초과를 이유로 미 사령관 비행 금지 조치 내림. 알제에서 미완의 『성채』 수정 작업. 31편대장 샤생 대령 중재로 샤르데뉴 주둔군에 배속. 5회 비행 조건으로 알제 2-33 중대 복귀.
- 1944 8회 출격으로 약속 위반에도 불구하고 8월 1일 남부 지역 재출격. 이후 탑승 금지 조치당함. 7월 31일 8시 30분, 그르노블-안시 간 정탐 명령을 받고 미국산 쌍발기 'P-38 라이트닝'을 개량한 정찰기를 타고 코르시카 보르고 기지 이륙. 생텍스의 소설 읽으며 비행사 꿈을 이룬 독일군 호르스트 리페르트 Horst Rippert의 기총 사격에 격추당해 지중해 추락. 이렇게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정 미숙한 신종 비행기에 탑승 자원 출정한 마흔네 살의 우편 조종사-작가 생텍스 지중해에서 장렬히 전사.

1998년 장 클로드 비앙코, 생텍스와 부인 콘수엘로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 발견 후 잠수부 뢰 반델, 추락한 비행기 잔해 발견. 천식을 앓던 콘수엘로 순신, 바로 콜록거리는 장미꽃이다.

2008 88세의 퇴역 독일군 조종사 리페르트에 의해 생텍스 실종 신비 밝혀져 생텍스 전사자 명부에 오름.



『어린 왕자』의 판본 소개

1943년 뉴욕의 레이날 앤 히치콕Reynal & Hitchcock 출판사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출간한 쌍둥이판 『어린 왕자*Le Petit Prince*』와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는 올해 4월 6일 일흔한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파리의 인도 유학생 미쉬라가 인도유럽어족의 조상어인 산스크리트로 번역하여 26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읽히게 된 『어린 왕자』는—1,27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제외하면—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작품들 가운데

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민족, 계층과 세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읽히는 『어린 왕자』가 세계시민을 하나로 이어 주는 만큼, 독자들은 진실을 조건으로 우리를 함께함으로 이끄는 작가의 힘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셈이죠.

『어린 왕자』는 이후 판본마다 내용과 삽화의 변화를 보이며 출간되어 현재까지 2억 부 이상 판매되어, 거의 한 세기 이전인 1859년에 출간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 이어 역대 문예물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유명한 『어린 왕자』의 프랑스어본이 정립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1943년 미국에서 간행된 초판의 어린 왕자는 해넘이를 ‘마흔네 번’ 보고, ‘녹색’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4년 런던의 윌리엄 하이네만(William Heinemann) 판의 어린 왕자 가운은 ‘남색’으로 바뀌고,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1945년 11월 30일 출간된 갈리마르 판에 이르면 ‘감청’ 가운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삽화가 원본과 차이를 보이게 되죠.

『어린 왕자』 판본과 관련하여 가장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

는 ‘르프티프랑스넷(lepetitprince.net)’이 지적하듯 1946년 갈리마르판의 해넘이는 ‘마흔세’ 번으로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이후 프랑스어본 『어린 왕자』를 온전한 초판 텍스트로 복원하려는 노력은 1999년 1월 25일 갈리마르가 출간한 『어린 왕자(Le Petit Prince)』(Collection Folio 3200, ISBN 978-2-07-040850-4)에 이르러 서야 결실을 봅니다.

삽화도 제 모습을 찾고, 해넘이 수도 ‘마흔네’ 번으로, ‘소행성 3251’이 ‘소행성 325’로 되돌려진 것입니다. 이전의 우리말 번역본들도 ‘astéroïde 325’를 ‘소혹성 3251’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호’를 떠나 방문하게 되는 이웃 여섯 행성의 이름들은 ‘소행성 325’~‘소행성 330’이기에 ‘3251’의 ‘325’로의 수정은 『어린 왕자』를 정독하는 독자들이 갖는 커다란 의문을 해소시켜 주었지요.

하지만 1999년 갈리마르판 역시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호’를 떠나기 직전 자신의 별을 청소하는 삽화에 8시 방향 태양광선 하나를 누락시키고 말아 옥에 티를 남기고 있지요.

한편 쌍둥이 초판인 영어본의 경우, 1948년 생텍쥐페리의 친구이기도 한 발행인 히치콕이 사망하고 레이날 앤 히치콕 출판사의 저작권이 하르코트, 브레이스 앤 컴퍼니(Harcourt,

Brace & Company 출판사로 넘어가면서 『어린 왕자』를 영어로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하르코트 판을 읽어 오고 있습니다.

1947년의 폴란드어본, 1949년의 이탈리아어본, 1950년의 독일어본과 덴마크어본, 1951년의 스페인어본, 네덜란드어본과 핀란드어본, 1952년의 스웨덴어본, 브라질의 포르투갈어본과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본에 이어 1953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에서 일본어본이 간행됩니다.

이 일본어본의 특징은 이탈리아어본처럼 이전의 갈리마르 판을 따라 해넘이 수가 ‘마흔세 번’, 소행성 번호가 ‘3251’로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어 온 『어린 왕자』의 해넘이 수가 ‘마흔세 번’이고, ‘소행성 3251’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서울 신태양사 출판국이 간행한 안응렬 선생 번역의 『어린 왕자』 그리고 그 이전의 번역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존하는 최고의 한국어본은 1960년 동아출판사가 간행한 고 안응렬·박남수 공역의 생텍쥐페리 선집인 『세계 문학전집』(제1기 13권)입니다.

여기에 실린 마지막 작품이 원제를 *Petit prince*로 표기한 『어린 왕자』이니 유서 깊은 출판사의 깊은 안목을 헤아려 봅니

다. 이후 1953년, 1962년, 1968년의 일본어본과 1999년 이전의 갈리마르판에 의거한 우리말 번역본의 수는 무려 이백 여 종이 넘지요.

이 가운데 유명출판사 번역본은 이전 판본 삽화의 세부 사항, 해넘이 수와 소행성 이름 등의 오류를 거듭 수정하여 1943년 초판과 거의 흡사한 1999년 갈리마르판의 내용을 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본의 출판사와 출간 년도를 밝히는 경우가 드물고, 나아가 이전의 일본어 중역본을 저본으로 한 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인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문학자들 번역의 경우 역시 『어린 왕자』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이전 번역본에 근거하여 작업한 결과 보통명사의 오역이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어본이라도 한 번 살 펴보았다면 금방 수정할 수 있는 오류이지요.

『어린 왕자』 전편으로서의 『사람들의 땅』 번역

이러한 상황은 어린 왕자의 전편에 해당하는 『인간의 대

지』—역자는 『사람들의 땅』으로 옮겼습니다—번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번역본 종류가 이십여 종에 가까운 『인간의 대지』의 오역과 탈역은 저본을 일본어본으로 삼았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번역을 아무리 윤색한들 번역의 질 자체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문제도 영어본을 참조하였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펠 벅의 『대지 *The Good Earth*』의 유명세에 따라 일본어 번역을 그대로 옮긴 『인간의 대지』라는 제명은 진실의 공간으로서의 ‘사람들 사이의 땅’을 짚어 내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라는 의식, 흔히들 말하는 공동체 의식 너머로 존재하는 ‘공동의 의식 *conscience du commun*’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이며, 생텍스는 이 연결된 사람들 사이—『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가르쳐 준 길들임의 관계—를 ‘사람들의 땅’이라 불렀죠. 이 경우 사람들 자신이 땅이 되는 셈이지요.

제목 번역부터 보통명사 번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사람들의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왕자』는 이 『사람들의 땅』, VII 「사막 한가운데에서」

의 죽음에 직면한 고통의 일지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권말에는 아예 야간열차 좌석의 부모 사이에 끼어 잠든 아이들을 어린 왕자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에게 진실을 가르쳐 준 귀 큰 사막의 여우를 등장시킨 『사람들의 땅』은 『어린 왕자』의 전편인 것입니다.

번역은 불가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작업입니다. 다만 20세기의 인간다운, 너무나 인간다운 우편비행사이자 전투비행사, 항로개척자이자 착륙장치 개발자로서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고난의 일지 시리즈 『사람들의 땅』에 이은 그 속편 『어린 왕자』 번역을 마무리하여 ‘어린 왕자 시리즈’를 완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ANTOINE DE SAINT-EXUPÉRY, *Œuvres complètes*, tome II (É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Michel Autrand et Michel Quesnel avec la collaboration de Paule Bounin et Françoise Gerbod, 1999)를 저본으로 하여 영어본, 독일어본, 스페인어본, 일어본, 중국어본과 그 밖의 많은 외국어본들과 우리말 번역본을 참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땅』 번역에서처럼 고 안응렬 선생과 그 외의 다른 선행 번역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출판계 현황에도 불구하고 줄져 『영화는 예술인가』에 이어 『어린 왕자』 번역 출간을 감행한 <새로운사람들> 대표 이재욱 형님, 그리고 매번 제 글쓰기와 출간에 아낌없이 시간을 할애해 준 두 동료 김원기와 이순호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어린 왕자』 번역에 관해 아낌없는 충고를 해 준 사이버 독자들과 『어린 왕자』를 함께 읽으며 출간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해준 고대 불문과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어린 왕자 인문학 프로젝트’ 실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성남시청소년재단 염미연 상임이사님과 수련관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내심 『어린 왕자』를 읽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도 그만큼 솔직해지리라 조심스레 기대해 보며 번역의 변을 마칩니다.

2014년 4월 어느 멋진 날,
경기도 죽현에서 역자 두손모아 고개숙임.